

## ‘두음법칙’ 과 통일

류길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연** 마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갔다. 신청 용지에 필자의 이름을 써서 제출해 놓고 기다리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등뒤를 때린다. “이 사람은 두음법칙도 모르나? 도대체 자기들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쓰나.” 이런 식의 말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터라 시비를 가릴 생각은 정말이지 추호도 없었지만 불쾌한 느낌은 생길 수밖에. 하기는 얼마전 대법원에서 ‘류’氏성은 ‘유’로 표기하라는 판례가 나왔다니 법적으로야 할 말이 없지만 말이다.

필자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잘나서 ‘류’를 고집했던 것은 아니고,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께서 쓰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써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굳어져서 두음법칙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인가 배웠지만 무시해왔다. 그러다가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잠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그대로 써주기로 하였다. 대단히 거창한 생각은 아니고 고유 명사는 본래의 음가와

발음을 존중해야 하며, 성씨는 고유 명사라는 것이었다.

필자가 이러한 생각을 굳힐 수 있었던 데에는 북한에서 성씨뿐만 아니라 보통 명사들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는 라(羅), 량(梁), 려(呂), 렴(廉), 로(盧), 류(柳), 리(李), 림(林)氏성들은 모두 그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발(理髮)’을 ‘리발’, ‘논문(論文)’을 ‘론문’으로 쓰는 등 보통 명사의 경우에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어문법을 하나의 준거로 삼겠다는 필자의 말이 我田引水라고 탓할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2,000만 이상의 동포들이 쓰고 있는 용례가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없을까? 이같은 필자의 말이 궤변이거나 억지임에 틀림없다. 남한에 사는 사람은 남한의 법을, 북한에 사는 사람은 북한의 법에 따라 살 일이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다른 국가 사회를 구성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 기사나 북한

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위의 성씨를 갖는 북한의 인명들에 예의 '우리식'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본다.

필자가 아는 한 두음법칙이 우리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경이다. 당시에는 주로 모음 앞에 'ㄹ'이 나오는 말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18세기경에는 'ㄴ'이 나오는 말들이 바뀌기 시작함으로써 두음법칙의 경향이 발전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안한 「맞춤법 통일안」에서 체계화되었으나, 당시 조선어학회가 단지 민간 단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두음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해방 직후의 문헌에서 남북한을 막론하고 두음법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후 1946년경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에서는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에 따라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첫번째 언어 이질화가 조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성을 반드시 '리'로 쓰도록 했던 것을 보면, 이 법칙이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유 성씨에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성씨 구분의 혼란을 주는 것까지야 '악법도 법'이

니까 그런대로 참아야 하지만, 왜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의 성씨를 우리 마음대로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며 외국의 예를 비주체적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는다면, 영어권에서 성씨들의 용례는 제멋대로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능한 그들의 성씨를 정확하게 쓰고 발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예컨대,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Robert Keohane의 성을 '코헨', '키헨', '코해인', '키오해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부르게 되며, 이같은 예는 허다하다. 그렇다고 그의 가문이 정부나 여론에 의해 발음이 헛갈리니 Keohane라고 하지 말고, Kohane이라고 써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본인들의 성씨 가운데에도 같은 한자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쉬은 예로 上田(우에다)과 村上(무라까미)이라는 성씨가 있는데 여기서 '上' 자는 '우에'라고도 발음되고 '까미'라고도 발음된다. 이외에도 일본인들의 성씨 가운데에는 그야말로 그 성씨를 가진 사람 아니면 알기 어려운 발음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 당국이 발음의 편의를 위해 '上' 자는 모두 통일시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에'로 발음해야 한다고 규제를 가했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다.

언어란 한 민족이 오랫동안 생활해오면서 겪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것이다. 지구 상에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이나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격리된 삶은 그들간의 언어적 차이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례에 관해서야 합의가 가능하고, 설혹 그러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되지만, 특히 고유한 사물을 지칭하는 용법에 관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간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는 방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뿐, 수도 없이 풀어야 할 많은 이슈들이 가로놓여 있다. 국어학자들께서 들으면 언짢아 하실 테지만, 언어의 문제는 여타 문제들에 비하면 하찮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언어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남북한간의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풀어야 할 정치적·경제적 과제는 그것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의 문제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겪었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근대화 및

서구화에 의해 오염된 것이 많다. 북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많은 언어적 변용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외한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북한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과 글 속에 우리의 전통적인 어휘나 용례가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 보인다. 그것은 필자가 연변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조선족이 쓰는 말들과 북한의 말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언어 역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고 보면 꼭 전통적인 어법을 기준으로 복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에는 그야말로 정체 불명의 것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뜻있는 국어학자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국어를 순화시키고 근대화를 통해 오염된 말과 글을 다듬는 작업이다. 보다 중요한 자기 할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문법체계에 맞추어서 북한이 쓰는 용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이 지금과 같이 북한 사람들의 인명을 두음법칙에 맞추어 쓰게 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북한 사회에 대해 부지한 그들이 이들과 우리는 다른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우려된다면 필자의 과민 반응일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언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비록 사례들은 전혀 다르지만 북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북한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 정책들에 대해 우리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매우 특수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마치 우리 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적자'일 뿐만 아니라 '보편 타당한' 것이며, 북한은 '사생아'이자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이러한 생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한국의 정치제도, 경제체제, 사회·문화가 과연 한국의 전통적인 흐름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물론, 과거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보편성은 획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 우리 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겸허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교정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은 북한의 것을 보다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북한이 채택해온 사회주의체제는 실패임이 입증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제도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성과는 많은 거리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통일된 사회 속에서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장에서 공유하고 가꿔나가야 할 덕목을 북한 사회도 보유하고 있다. 바로 그것들을 찾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전초 작업으로서 북한이 내세우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인정이 있어야 하겠다. 그 가운데 북한 사람들의 성씨를 그들이 쓰는 대로 써주는 예의는 갖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